

2017~2018년 임원보수 공시 현황 분석

이수정

목 차

I. 서론

1. 연구목적
2. 분석대상 및 방법

II. 전체 임원보수 공시 현황

1. 상장 시장 기준 개별임원보수 공시 현황
2. 대기업집단 소속 기준 개별임원보수 공시 현황

III. 5억 이상 보수 수령 임원 대비 기타 임직원 보수 비교

1. 상장 시장 기준 사내이사 보수 비교
2. 대기업집단 소속 기준 사내이사 보수 비교
3. 5억 이상 보수 수령 사내이사 대비 기타 임직원 간 보수 비교

IV. 5억 이상 보수 수령 임직원 현황

V. 대기업집단 5억 이상 보수 수령 임직원 현황(퇴직금 제외)

1. 대기업집단 5억 이상 수령 사내이사와 기타 사내이사 보수격차
2. 5억 이상 보수 수령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현황
3. 전문경영인 사내이사 평균보수와 격차 큰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4. 대기업집단 고액보수 최상위자와 차상위간 보수격차
5. 복수 계열사 고액보수 수령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6.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퇴직금 수령 내역

VI. 결론 및 시사점

요 약

- 본 보고서는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2013 년부터 분석해온 상장회사 임원의 보수 공시 현황 관련 다섯 번째 보고서임
 - 5 억원 이상 보수를 수령한 등기임원이 존재하여 개별보수를 공시한 회사는 2018 년 기준 전체 상장회사의 약 30%임. 등기임원으로서 5 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임원은 대부분 사내이사이며, 2018 년 기준 전체 등기임원 대비 약 7%, 전체 사내이사 대비 13%의 사내이사가 개별보수를 공시함
 - 2018 년 등기임원 외 5 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미등기임원 및 직원 중 전체 보수 상위 5 위 내 임직원의 개별보수가 최초 공시되었는데, 보수 공개된 임직원은 516 명으로 전체 임직원의 극히 일부였음
- 5 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의 평균보수는 2017 년 12 억 7500 만원, 2018 년 13 억 7900 만원으로 그 외 등기임원과 보수격차가 큼
 - 5 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사실상 사내이사)의 평균보수는 전체 사내이사 평균보수의 4 배를 초과하며, 보수총액 5 억원 미만 사내이사와 보수격차는 약 9 배에 이르고 있음(2018 년 기준)
 - 직원과 평균보수 격차는 더욱 커서 전체 직원 평균보수 약 6500 만원과 5 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의 평균보수 격차는 약 20 배에 달함
- 5 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 중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평균보수는 대기업집단 전문경영인이나 비기업집단 지배주주 및 전문경영인과 유의미한 격차를 보임
 - 2018 년 기준 5 억원 이상 보수 수령한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평균보수는 19 억원인데 비해 대기업집단 전문경영인과 비기업집단 지배주주 평균보수는 10 억원, 비기업집단 전문경영인 평균보수는 12 억원으로 1.5 배 이상 격차를 보였음
- 개별보수 공시 이후 5 년 동안 5 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중에서도 최상위 보수 수령자는 현대차그룹 정몽구, 씨제이그룹 손경식, 엘지그룹 구본무, 롯데그룹 신동빈, 한진그룹 조양호 등임
 - 씨제이그룹 손경식과 엘지그룹 구본무는 각각 씨제이제일제당과 (주)엘지 1 개 계열사에서 최상위 금액의 보수를 수령. 엘지그룹 구본무는 2018 년 사망 후 (주)엘지에서 200 억원 이상의 고액 퇴직금을 수령함

- 현대차그룹 지배주주 정몽구는 2014 년~2016 년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중 최고액 보수 수령자이자 2017~2018 년 차상위 보수 수령자임. 정몽구는 2014 년까지 3 개 계열사, 2015~2018 년 2 개 계열사에서 고액보수를 수령함
 - 롯데그룹 신동빈과 한진그룹 조양호는 불법행위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복수의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며 고액의 보수를 수령함. 2018 년 기준 신동빈과 조양호가 5 억원 이상 보수를 수령한 계열사는 각각 5 개 계열사에 달함. 한진그룹 계열사는 2019 년 조양호의 사망 후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짐
- 2018 년 고액보수를 수령하는 미등기임원 및 직원의 개별보수 공시 의무화로 일부 미등기임원인 지배주주의 개별보수가 공시됨
- 특히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중 미등기임원으로만 재직 중인 신세계 이명희 등과 케이씨씨 정상영, 엘지 구본준 및 형사재판 유죄판결 후에 미등기임원으로 경영에 복귀한 씨제이그룹 이재현과 에스케이그룹 최태원 등이 30 억원 이상 고액보수를 받고 있음이 확인
 - 씨제이그룹 지배주주 이재현은 2017 년까지 개별보수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2018 년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3 개 계열사에서 160 억원 이상을 받아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중 최고액 보수 수령자로 확인됨
- 앞서 언급한 롯데그룹 신동빈, 한진그룹 조양호, 씨제이그룹 이재현, 에스케이그룹 최태원 등 불법행위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대기업 지배주주들이 지속적으로 복수의 계열사로부터 거액의 보수를 받고 있는 현실은 기업의 임원 보수 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케 함
- 개별보수 공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공시대상 확대 뿐 아니라 개별보수 산정 관련 공시 강화 등이 필요함
- 우선 개별보수 공시 대상 확대를 위해 공시 기준을 현행 5 억원에서 하향조정하는 것을 검토
 - 개별보수 산정기준과 내부 임원보수규정, 임원퇴직급여 규정 등 보수와 관련된 기준과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2017~2018 년 임원보수 공시 현황 분석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

I. 서론

1. 연구목적

본 보고서는 2017~2018 년 상장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등기임원 등의 보수현황을 분석하였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13 년 5 억원 이상 고액보수를 받는 상장회사 등기임원의 개별보수 내역이 공시¹된 이후 등기임원의 전체 보수 및 고액보수를 수령하는 개별임원의 보수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2014 년부터 발표해 왔으며 본 보고서는 다섯 번째 보고서이다.

한편 2018 년 12 월 결산법인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부터 등기임원 여부와 관계 없이 개별 보수가 5 억원 이상이며 보수총액 상위 5 명 이내인 임직원의 보수 상세내역과 산정기준 및 방법이 공시되었다.² 또 미등기임원의 전체 보수 및 평균보수 역시 공시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의 일부에 미등기임원 보수 및 5 억원 이상 보수를 수령한 미등기 임직원의 보수 현황을 포함시켰다.

2. 분석대상 및 방법

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59 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 1 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 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59 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② ...3 의 2. 3 의 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 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 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 분석대상 회사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과 방법 및 기준은 과거 임원보수 공시 현황 보고서와 동일하다.³

분석대상은 결산일이 2017 년과 2018 년 각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인 유가증권 상장회사와 코스닥 상장회사로, 투자회사(선박, 부동산)와 기업인수목적회사, 해외 상장회사 등을 제외하였다. 그 밖에 회사채를 발행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비상장법인 및 코넥스 상장회사 역시 분석대상에서 배제하였다.

분석대상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18 년 3 월 31 일까지 제출된 2017 년, 2018 년 회계연도 보고서이다. 사업보고서 제출 후 정정공시를 통해 공시내역이 수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 보고서는 5 월 말 정정공시까지만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정공시된 사업보고서 상 수치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밖에 기중 결산기가 변경되어 사업보고서가 복수로 제출된 경우 보수 지급기간이 긴 사업보고서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2) 분석방법 및 기준

본 보고서는 전체 분석대상의 등기임원 및 직원 전체 보수 외에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시한 회사 및 개별 보수내역을 대기업집단 및 비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및 전문경영인, 유가증권 상장 회사 및 코스닥 상장회사 등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5 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임직원에게 대한 개별보수 공시는 급여, 상여, 기타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의 항목으로 나뉘며, 회사에 따라 성과급을 별도로 구분하기도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를 통해 이익이 실현된 당해 연도에 공시의무가 있다. 개별보수 항목은 기본적으로 사업보고서 공시를 따라 구분하였다. 단 기타소득 항목 중 퇴직금한도초과액 등 퇴직금 관련 급여로 구분된 금액을 연구자가 회사별로

³ 이수정. "2016 년 임원보수 공시 현황 분석." 경제개혁리포트(2017-08): 1-47.)

이수정. "2015 년 임원보수 공시 현황 분석." 경제개혁리포트(2016-07)

강정민. "2014 년 임원보수 공시 현황 분석." 경제개혁리포트(2015-05)

강정민. "개별임원보수 공시현황과 개선과제." 경제개혁리포트(2014-04)

확인하여 퇴직금 항목으로 재분류하였다.

한편 등기임원 및 기타 임직원의 평균보수금액은 기본적으로 사업보고서 공시를 따르되, 공시 오류가 명백할 경우 보수총액 대비 인원을 단순평균하여 계산된 값을 사용하였다. 동 회계연도 퇴직 임원 중 보수를 받은 임원은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고, 무보수 임원은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상 임원의 보수 항목 중 임원 숫자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영향이 크지 않다.

- i) 임원 : 등기이사(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외에 감사를 포함한 등기임원
- ii) 임원수 및 직원 수 : 본 보고서에서 언급한 임원(등기이사 및 감사) 수는 회사가 작성한 사업보고서 중 "임원의 보수" 공시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보수를 받은 임원을 기준으로 수정하였음. 직원 수는 사업보고서 중 "직원현황"의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함
- iii) 대기업집단 : 2017 년과 2018 년 공정위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의미하며, 비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 계열사를 제외한 나머지 분석대상 회사를 의미함.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소속은 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소속 기준으로 판단함
- iv) 등기임원 : 2018 년 개별보수가 공시된 임원은 보수지급 당시 등기여부를 기준으로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으로 구분함. 즉 18 년 중 등기임원을 사임했다라도 등기임원인 상태에서 퇴직금을 포함한 보수를 받았을 경우 등기임원으로 구분함. 즉 전직 이사일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상 '보수지급금액 5 억원 이상 중 상위 5 명의 개인별 보수현황'이 아닌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에서 개별보수 내역을 공시했을 경우 등기임원으로 구분함
- v) 지배주주 일가 : 회사의 지배주주 및 그 친인척, 그리고 공동경영을 영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며, '전문경영인'은 지배주주 일가가 아닌 임원을 의미
- vi) 임원보수 평균 : 사업보고서 서식은 전체 임원 보수를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으로 구분하여 표기. 이 중 등기이사의 인원 수로 총보수를 인원수로 나누어준 것이 사내 이사의 평균보수지급액. 다만, 회사마다 중간 퇴직 임원 포함 여부, 무보수 이사 제외 여부 등을 고려하여 등기이사 인원 수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본 보고서는 '실제 보수를 받는 임원' 수를 연구자가 산출하여 사용하였음

(3) 분석의 한계

① 각 회사별 사업보고서 공시 방식의 차이에 따른 한계

임원의 보수총액은 자본시장법 제 159 조 및 동 시행령 제 168 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재임 및 퇴임한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이 등기임원으로서 받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퇴직소득의 총액을 공시한다. 따라서 등기임원 1인 평균 보수를 실질에 맞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등기임원의 수 역시 재임 및 퇴임한 임원 전체 숫자를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회사가 임원보수 현황 공시에 등기임원의 수를 사업보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인원만을 기재하거나, 연평균 인원을 기재하고 있으며, 동 회계연도 내 사임한 이사를 제외하거나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이사를 포함시키는 사례도 있다. 또 등기이사의 보수지급액에 사외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 보수를 기재하거나 사외이사과 감사위원의 보수를 중복 기재하는 오류도 발견되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보고서는 연구자가 실제 보수를 받은 이사 수를 최대한 확인하여 과다 기재 또는 과소 기재된 경우를 수정하였으나, 일부 정확한 평균 보수 산정이 되지 못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다.

② 개별 임원보수가 일부만 공시됨에 따른 한계

현재 전체 개별 임원의 보수가 공시되지 않고,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의 보수만 공시되기 때문에, '임원 중 5억 미만 보수를 받는 지배주주 일가'의 내역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배주주 일가와 전문경영인 간 보수격차 분석 등 일부 분석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실제 5억원 미만 보수를 받는 지배주주 일가의 숫자가 극히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배주주 일가인 임원은 모두 5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전문경영인의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가 많아 동일한 가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 간 보수 차이는 실제로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또, "보수액 최상위와 차상위 수령자 분석"의 경우 퇴직금이 포함된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인 임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보수총액에서 퇴직금을 차감한 후 최상위 수령자와 차상위 수령자를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이 경우 보수총액 5억원 미만으로 개별보수가 공시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위와 같이 퇴직금을 제외한 고액보수 수령 임원보다는 보수총액이 많은 임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즉 '퇴직금을 제외한 보수총액 기준' 최상위나 차상위 보수 수령 임원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II. 전체 임원보수 공시 현황

1. 상장 시장 기준 개별임원보수 공시 현황

분석대상인 회계연도가 각 1 월 말부터 12 월 말 사이인 상장회사는 2017 년 1971 개, 2018 년 2035 개이다. 이 중 유가증권 상장회사는 약 38%인 761 개사, 771 개사이며 나머지는 코스닥 상장 회사이다. 이 중 개별임원의 보수를 최소 1 명이라도 공시한 회사는 2016 년 521 개, 2018 년 621 개이다. 즉 2017 년 전체 상장회사 중 26%가 1 명 이상 임원의 개별보수를 공시하였으며, 2018 년에는 31%의 회사가 개별임원의 보수를 공개하였다.

분석대상 회사의 전체 등기임원 수는 2017 년 12,182 명, 2018 년 12,659 명인데, 이 중 개별 보수가 공시된 임원은 각각 785 명, 904 명으로 2017 년에는 전체 등기임원의 6%, 2018 년에는 7%의 보수가 공개된 것이다. 개별보수 공시 임원의 약 70%는 유가증권 상장회사 임원이며, 나머지 30%가 코스닥 상장회사 임원이다.

개별보수가 공시된 등기임원 중 2017 년 감사 2 명, 2018 명 감사 3 명을 제외한 783 명, 901 명은 모두 사내이사로, 최근 2 년 동안 5 억원 이상 보수를 수령한 사외이사는 없다. 전체 사내이사 대비 개별보수 공시 사내이사의 비율은 2017 년 12%, 2018 년 13%이다.

한편 2018 년 처음 개별보수가 공시된 미등기 임직원은 240 개사의 516 명으로 이 중 144 개사는 고액보수를 받는 등기임원 없이 미등기 임직원 285 명의 개별보수 내역만을 공시하였다.

<표 1> 상장 시장 기준 임원보수 공시 현황(2017 년) (단위: 개사, 명, %)

시장 구분	대상 회사수	개별보수공시 회사수	개별보수공시 회사 비율	대상회사 임원수	개별보수공시 임원수	개별보수공시 임원 비율	대상회사사내이사수	개별보수공시사내이사수	개별보수공시사내이사 비율

코스피	761	329	43	5,017	550	11	2,524	549	22
코스닥	1210	192	16	7,165	235	3	4,119	234	6
소계	1971	521	26	12,182	785	6	6,643	783	12

<표 2> 상장 시장 기준 임원보수 공시 현황(2018 년) (단위: 개사, 명, %)

시장 구분	대상 회사수	개별보수공시 회사수	개별보수공시 회사 비율	대상회사 임원수	개별보수공시 임원수	개별보수공시 임원 비율	대상회사사내이사수	개별보수공시사내이사수	개별보수공시사내이사 비율
코스피	771	374	49	5,113	611	12	2,555	609	24
코스닥	1264	247	20	7,546	293	4	4,306	292	7
소계	2035	621	31	12,659	904	7	6,861	901	13

2. 대기업집단 소속 기준 개별임원보수 공시 현황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2017 년 254 개, 2018 년 256 개사로 전체 분석대상의 약 12%에 불과하지만, 1 명 이상 개별임원의 보수를 공시한 계열사는 2017 년 167 개, 2018 년 185 개사로 전체 기업집단 계열사의 2/3 이상이 1 명 이상의 임원에 5 억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여 공시하였다. 반면 비기업집단 회사 약 1700 개사 중 개별임원 보수를 공시한 회사 비율은 2017 년 21%, 2018 년 25%로 기업집단에 비해 낮은 편이다.

개별보수가 공시된 대기업집단 등기임원은 2017 년 316 명, 2018 년 357 명으로 분석대상 대기업집단 등기임원 중 약 20%의 개별보수가 공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기업집단 등기임원 중 보수가 공개된 임원은 2017 년 469 명, 2018 년 547 명으로 전체 비기업집단 등기임원의 약 5%에 불과하였다.

한편 2018 년 사업보고서에 처음 개별보수를 공시한 미등기 임직원은 대기업집단 소속 318 명, 비기업집단 소속 198 명으로 전체 미등기임원 19,195 명이나 직원 160 만명 중 극히 일부만이 공시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대기업집단 소속 기준 임원보수 공시현황(2017 년) (단위: 개사, 명, %)

기업집단구분	개별보수공시 회사수	개별보수공시 회사비율	개별보수공시 회사비율	대상회사 임원수	개별보수공시 임원수	개별보수공시 임원 비율	대상회사사내이사수	개별보수공시사내이사수	개별보수공시사내이사 비율
--------	------------	-------------	-------------	----------	------------	--------------	-----------	-------------	---------------

대기업 집단	254	167	66	1,732	316	18	797	316	40
비기업 집단	1,717	354	21	10,450	469	4	5,846	467	8
소계	1,971	521	26	12,182	785	6	6,643	783	12

<표 4> 대기업집단 소속 기준 임원보수 공시현황(2018 년) (단위: 개사, 명, %)

기업집단구분	개별보수공시회사수	개별보수공시회사비율	개별보수공시회사비율	대상회사 임원수	개별보수공시 임원수	개별보수공시 임원비율	대상회사사내이사수	개별보수공시사내이사수	개별보수공시사내이사비율
대기업 집단	256	185	72	1,762	357	20	807	357	44
비기업 집단	1,779	436	25	10,897	547	5	6,054	544	9
소계	2,035	621	31	12,659	904	7	6,861	901	13

대기업집단 별로 개별보수 내역을 공시한 임원의 수는 <표 5>와 같다. 삼성과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등 상위 5 위 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서 5 억원 이상 보수를 수령, 내역을 공시한 등기임원의 수가 많았으며, 전체 상장계열사 등기임원 대비 개별보수를 공시한 등기임원의 비율은 위 상위 대기업집단 외에 아모레퍼시픽, 금호석유화학, 한국테크놀로지(구 한국타이어), 네이버 등이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반면 높은 부채비율로 재무건전성이 우려되는 대우건설과 분식회계로 문제가 된 대우조선해양 등은 2 년 연속 5 억 이상 보수를 받는 임직원이 없다.

<표 5> 대기업집단별 임원보수 공시현황 (단위: 명, %)

기업집단	2017 년			2018 년			
	상장계열사 등기임원수	개별보수 공시 임원수	개별보수 공시 임원비율	상장계열사 등기임원수	개별보수 공시 임원수	개별보수 공시 임원비율	개별보수공시미등기임직원수
교보	4	1	25	6	1	17	4
금호산업	15	2	13	15	3	20	
금호석유화학	6	2	33	9	2	22	3
네이버	7	3	43	7	3	43	3
넷마블	비기업집단			5	2	40	4
넥슨	6	-	-	비기업집단			
농협	33	1	3	비기업집단			
대림산업	27	3	11	27	1	4	4

대우건설	6	-	-	7	-	-	-
대우조선해양	6	-	-	7	-	-	-
동국제강	17	1	6	12	1	8	1
동원	20	1	5	20	1	5	4
두산	45	9	20	61	12	20	9
디비	26	3	12	31	4	13	4
롯데	80	13	16	84	21	25	12
메리츠금융	비기업집단			16	5	31	8
미래에셋	15	3	20	20	6	30	4
삼성	116	45	39	120	46	38	42
삼천리	8	-	-	5	-	-	2
세아	26	1	4	39	-	-	-
셀트리온	25	3	12	23	2	9	9
신세계	44	8	18	43	13	30	12
씨제이	51	10	20	51	15	29	12
아모레퍼시픽	15	5	3	14	4	29	3
에스엠	17	2	12	17	1	6	1
에스케이	118	24	20	115	21	18	30
에쓰-오일	11	1	9	11	1	9	4
에이치디씨	20	4	20	18	1	6	-
엘에스	45	6	13	46	6	13	1
엘지	74	19	26	73	24	33	29
영풍	41	3	7	37	3	8	3
오씨아이	28	5	18	32	4	13	5
유진	비기업집단			20	2	10	6
이랜드	6	-	-	7	-	-	-
지에스	42	9	21	42	9	21	8
카카오	24	3	13	18	7	39	5
케이씨씨	19	4	21	19	5	26	3
케이티	66	5	8	66	8	12	-
케이티앤지	15	2	13	16	3	19	2
코오롱	44	10	23	40	7	18	5
태광	15	-	-	15	-	-	1
태영	32	6	19	27	3	11	-
포스코	36	12	33	37	12	32	6
하림	41	5	12	46	7	15	-
하이트진로	10	-	-	10	-	-	3
한국금융지주	7	1	14	8	3	38	1
한국테크놀로지	17	5	29	21	3	14	1
한라	27	5	19	28	5	18	4
한솔	62	3	5	63	6	10	5
한진	42	7	17	37	9	24	5

한진중공업	15	6	40	10	2	20	-
한화	57	12	21	58	10	17	15
현대백화점	52	11	21	53	11	21	3
현대중공업	29	5	17	29	5	17	5
현대차	86	24	28	85	35	41	25
효성	36	3	8	36	2	6	2
총합계	1,732	316	18	1,762	357	20	318

III. 5 억 이상 보수 수령 임원 대비 기타 임직원 보수 비교

1. 상장 시장 기준 사내이사 보수 비교⁴

분석대상 회사가 2017~2018 년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전체 사내이사 수 및 보수총액과 개별보수를 공시한 사내이사 수 및 보수총액을 기초로 하여 5 억 미만 보수를 받은 사내이사 수 및 보수를 역산, 고액보수 수령 사내이사 대비 5 억 미만 수령 사내이사 평균 보수 등을 나타낸 것이 <표 6>와 <표 7>이다.

2017 년 5 억 이상 사내이사의 평균보수는 12 억 7500 만원으로 2016 년 11 억 9300 만원보다 상승하여 2015 년 12 억 1700 만원 보다 증가하였다. 고액보수 수령자 역시 2016 년 694 명에서 783 명으로 증가하였다. 2018 년에도 고액보수 수령자는 901 명, 평균보수는 13 억 7900 만원까지 증가하였다. 전체 사내이사의 평균보수 역시 2016 년부터 2 억 8100 만원, 2 억 9700 만원, 3 억 1500 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5 억 미만 보수를 받는 사내이사의 평균보수는 2016 년 1 억 6900 만원에서 2017 년 1 억 6700 만원, 2018 년 1 억 5400 만원으로 감소했다.

유가증권 상장회사 내 5 억 이상 보수수령 사내이사과 전체 사내이사의 보수격차는 2017 년 3.1 배, 2018 년 3 배로 소폭 감소했으며, 5 억 미만 사내이사와의 보수격차 역시 2017 년 8.5 배, 2018 년 7.9 배로 감소했으나 평균보수는 1 억 6000 만원, 1 억 8200 만원으로 고액보수 수령 사내이사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났다.

⁴ 5 억 이상 보수를 수령한 감사 2017 년 2 명, 2018 년 3 명을 제외하고, 2018 년 5 억 이상 보수를 수령한 미등기임원 및 직원을 제외한, 등기임원인 사내이사를 대상으로 한다.

코스닥 상장회사의 경우 고액보수 수령 사내이사의 평균보수는 2017 년 10 억 8900 만원, 2018 년 12 억 4200 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5 억 미만 사내이사 평균보수는 1 억 7100 만원, 1 억 4000 만원으로 줄어 보수격차가 심화되었다.

<표 6> 상장 기준 사내이사 보수 현황(2017 년) (단위: 명, 백만원)

시장 구분	전체 사내이사			5 억미만 사내이사			5 억원 이상 사내이사		
	사내이사 수	보수총액	평균 보수액	사내이사 수	보수총액	평균 보수액	사내이사 수	보수총액	평균 보수액
유가 증권	2,524	1,108,407	439	2,290	365,278	160	549	743,129	1,354
코스닥	4,119	866,287	210	3,570	611,476	171	234	254,811	1,089
전체	6,643	1,974,694	297	5,860	976,754	167	783	997,940	1,275

<표 7> 상장 기준 사내이사 보수 현황(2018 년) (단위: 명, 백만원)

시장 구분	전체 사내이사			5 억미만 사내이사			5 억원 이상 사내이사		
	사내이사 수	보수총액	평균 보수액	사내이사 수	보수총액	평균 보수액	사내이사 수	보수총액	평균 보수액
유가 증권	2,555	1,234,232	483	1,946	354,631	182	609	879,601	1,444
코스닥	4,306	924,366	215	4,014	561,624	140	292	362,742	1,242
전체	6,861	2,158,597	315	5,960	916,254	154	901	1,242,343	1,379

2. 대기업집단 소속 기준 사내이사 보수 비교

대기업집단 상장계열사 임원 중 5 억 이상 고액보수를 수령한 사내이사는 2016 년 270 명에서 2017 년 316 명, 2018 년 357 명으로 증가했으며, 평균보수 역시 최근 3 년 간 14 억 200 만원, 15 억 4300 만원, 16 억 3000 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5 억원 미만 보수를 받는 사내이사의 평균보수는 2017 년 1 억 9200 만원, 2018 년 1 억 7500 만원으로 감소했다.

대기업집단 내 고액보수 수령 사내이사와 5 억 미만 사내이사의 보수격차는 2018 년 9.1 배에 달한다. 즉 고액보수 수령자는 대기업집단 전체 사내이사의 44%이지만, 이들의 보수는 대기업집단 전체 사내이사 보수총액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비기업집단 사내이사 중 고액보수 수령자는 2017 년 467 명, 2018 년 544 명으로 전체 비기업집단 사내이사 대비 8~9%에 불과하다. 이들의 보수총액 역시 전체 비대

기업집단 사내이사 보수총액의 약 44%로 대기업집단 내 사내이사의 고액보수 총액 비중의 절반 정도이다. 다만 비대기업집단 사내이사의 고액보수 비중은 2016 년 34%에서 2017 년 37%, 2018 년 44%로 증가하고 있다.

<표 8> 대기업집단 기준 사내이사 보수 현황(2017 년) (단위: 명, 백만원)

기업집단구분	전체 사내이사			5 억 미만 사내이사			5 억원 이상 사내이사		
	사내이사 수	보수총액	평균 보수액	사내이사 수	보수총액	평균 보수액	사내이사 수	보수총액	평균 보수액
대기업 집단	797	579,969	728	481	92,465	192	316	487,504	1,543
비기업 집단	5,846	1,396,660	239	5,379	886,224	165	467	510,436	1,093
전체	6,643	1,976,629	298	5,860	978,689	167	783	997,940	1,275

<표 9> 대기업집단 기준 사내이사 보수 현황(2018 년) (단위: 명, 백만원)

기업집단구분	전체 사내이사			5 억 미만 사내이사			5 억원 이상 사내이사		
	사내이사 수	보수총액	평균 보수액	사내이사 수	보수총액	평균 보수액	사내이사 수	보수총액	평균 보수액
대기업 집단	807	660,855	819	450	78,786	175	357	582,069	1,630
비기업 집단	6,054	1,497,743	247	5,510	837,468	152	544	660,275	1,214
전체	6,861	2,158,597	315	5,960	916,254	154	901	1,242,343	1,379

3. 5 억 이상 보수 수령 사내이사 대비 기타 임직원 간 보수 비교

<표 10>과 <표 11>는 분석대상 회사가 2017~2018 년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 5 억 이상 수령 임직원의 보수와 직원의 보수를 비교한 것이다.

우선 직원 보수의 경우 2017 년 대기업집단 계열사 직원의 평균보수는 7300 만원으로 2016 년 7255 만원과 변화가 없으나 비기업집단 직원 평균보수는 2016 년 4784 만원에서 5300 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등기임원인 사내이사의 평균보수 상승폭은 더 커서 대기업집단 사내이사 평균보수는 2016 년 6 억 2200 만원에서 2017 년 1 억원 이상 증가한 7 억 2800 만원이었다. 비기업집단 사내이사 평균보수 역시 약 7000 만원 증가한 2 억 3900 만원이다.

직원과 사내이사의 보수격차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우 2016 년 8.6 배에서 2017

년 9.9 배, 2018 년 10.5 배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비기업집단 계열사 사내이사와 직원의 보수격차는 2016 년 4.9 배, 2017 년 4.5 배, 2018 년 4.5 배로 거의 변동이 없으며, 대기업집단 계열사 사내이사와 직원 보수격차의 절반 이하이다.

5 억 이상 보수를 받는 사내이사와 직원의 보수격차는 더욱 커서 대기업집단과 비기업집단 모두 20 배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18 년 사업보고서부터 공시된 등기임원 외 5 억 이상 보수를 받는 미등기임원과 직원의 개별보수와 직원 보수의 격차 역시 대기업집단 계열사 20 배, 비기업집단의 경우 25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5 억 이상 보수 수령사내이사와 직원 보수 현황(2017 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대규모기업집단			비기업집단		
	인원수	총급여	평균급여	인원수	총급여	평균급여
직원(A)	946,112	69,461,411	73	625,523	33,409,660	53
사내이사(B)	797	579,969	728	5,846	1,396,660	239
고액보수사내이사(C)	316	487,504	1,543	467	510,436	1,093
(B)/(A)			9.9			4.5
(C)/(A)			21.0			20.5

<표 11> 5 억 이상 보수 수령사내이사와 직원 보수 현황 (2018 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대규모기업집단			비기업집단		
	인원수	총급여	평균급여	인원수	총급여	평균급여
직원(A)	961,593	75,006,630	78	637,906	34,837,299	55
사내이사(B)	807	660,855	819	6,054	1,497,743	247
미등기임원(C)	7,674	2,712,368	353	11,521	2,143,238	186
고액보수사내이사(D)	357	582,069	1,630	544	660,275	1,214
고액보수임직원(E)	318	500,440	1,574	198	271,403	1,371
(B)/(A)			10.5			4.5
(C)/(A)			4.5			3.4
(D)/(A)			21.0			22.2
(E)/(A)			20.2			25.1

<표 12>과 <표 13>은 2017~2018 년 5 억원 이상 수령 등기임원 중 직원 평균보수와 격차가 가장 큰 상위 40 명의 현황이다. <표 12>와 <표 13>의 5 억원 이상 수령 등기임원의 보수는 퇴직금을 제외하고 급여와 상여 등만을 고려한 것이다. 이들 중 상위 10 명의 경우 직원 평균보수와 격차가 100 배에서 많게는 700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직원 평균보수와 격차가 큰 고액보수 수령 상위 40명의 임원 중 24명이 지배주주 일가로 전문경영인 보다 비중이 높았다. 전문경영인 16명 중 5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보수가 상승하였으나, 지배주주 일가는 24명 중 2명만이 고액보수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비기업집단 전문경영인으로서 직원 평균보수와 가장 격차가 큰 제넥스의 김창현(2017년), 에이치엘비의 김성철, 김하용, AlexS.Kim(2018년) 등은 모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이 보수총액의 90~100%를 차지했다.

직원 평균보수와 격차가 큰 상위 40명의 임원 중 대기업집단 계열사 소속은 24명으로 비기업집단 16명보다 많았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소속 임원 중 2/3인 16명이 지배주주 일가인 반면 비기업집단 소속 임원은 8명만이 지배주주 일가였다.

비기업집단 소속 임원 16명 중 7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수가 상승한 경향이 있는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임원 24명 전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한 내역 없이 급여와 상여 명목으로 고액보수를 수령하였다. 특히 삼성그룹 계열사 전문경영인 5명은 2017년 상여 명목으로만 30억~77억원의 고액보수를 수령하였다.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는 상여 77억원 외 별도로 기타근로소득으로 분류된 특별상여로 148억 2100만원을 수령하여 직원 평균보수와 격차가 208배에 달했다.

<표 12> 고액보수 등기임원(퇴직금 제외)와 직원 평균보수 격차 상위 40명(2017년)
(단위: 백만원, 배)

회사명	대기업집단 여부	성명	지배 여부	보수총액	직원 평균보수	차이
제넥스	비기업집단	김창현	전문	21,510	33	643.2
삼성전자	삼성	권오현	전문	24,381	117	208.4
넷게임즈	비기업집단	박용현	전문	8,530	42	201.2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지배	7,541	53	142.3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에스케이	최창원	지배	1,000	9	111.1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에스케이	김철	전문	956	9	106.2
뉴트리바이오텍	비기업집단	권진혁	전문	3,461	34	101.8
씨엠에스에듀	비기업집단	이충국	지배	3,390	38	89.2
씨제이제일제당	씨제이	손경식	지배	4,433	54	82.1
엔씨소프트	비기업집단	김택진	지배	6,224	83	75.2
삼성전자	삼성	신종균	전문	8,427	117	72.0
롯데제과	롯데	신동빈	지배	800	11	69.6
삼성전자	삼성	윤부근	전문	7,669	117	65.6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정지선	지배	3,556	55	64.7

삼성물산	삼성	최치훈	전문	5,755	90	63.9
아모레퍼시픽그룹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지배	3,378	54	62.6
롯데쇼핑	롯데	신동빈	지배	2,459	40	62.1
DB 하이텍	디비	최창식	전문	3,412	55	62.0
엘지	엘지	구본무	지배	6,330	105	60.5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국테크놀로지	조양래	지배	4,469	74	60.4
지에스	지에스	허창수	지배	5,034	91	55.3
디에스티	비기업집단	양성문	전문	1,050	19	54.9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김태한	전문	3,859	71	54.4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지배	4,489	83	54.1
한샘	비기업집단	최양하	전문	2,512	47	53.4
엘지생활건강	엘지	차석용	전문	3,244	61	53.2
롯데케미칼	롯데	신동빈	지배	5,042	95	53.1
에이치비테크놀러지	비기업집단	이재원	전문	2,211	43	51.4
현대자동차	현대차	정몽구	지배	4,579	92	49.8
신성이엔지	비기업집단	이완근	지배	2,000	41	48.8
디아이	비기업집단	박원호	지배	2,245	46	48.4
넷마블	비기업집단	권영식	전문	5,415	114	47.5
에이스침대	비기업집단	안유수	지배	1,740	37	46.6
파라다이스	비기업집단	전필립	지배	2,762	59	46.5
이녹스첨단소재	비기업집단	김필영	전문	1,192	26	45.9
이원	엘에스	구자용	지배	4,043	92	44.0
한양이엔지	비기업집단	김형욱	지배	2,441	56	43.6
큐리언트	비기업집단	남기연	지배	2,741	65	42.4
에스케이네트웍스	에스케이	최신원	지배	3,000	71	42.3
현대모비스	현대차	정몽구	지배	3,430	82	41.8

* 음영: 보수총액에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이 포함된 임원

2018 년 직원 평균보수와 격차가 큰 고액보수 수령 등기임원 중 전문경영인은 18 명 인데, 이 중 9 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보수가 급격히 증가한 사례이다. 반면 지배주주 일가 22 명 중에서는 1 명만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며 나머지 21 명의 고액보수는 급여와 상여 중심으로 산정된 것이다.

<표 13> 고액보수 등기임원(퇴직금 제외)와 직원 평균보수 격차 상위 40 명(2018 년)
(단위: 백만원, 배)

회사명	대기업 여부	성명	지배 여부	보수총액	직원 평균보수	차이
에이치엘비	비기업집단	김성철	전문	26,540	36	742.6
에이치엘비	비기업집단	김하용	전문	17,216	36	481.7

에이치엘비	비기업집단	AlexS.Kim	전문	14,616	36	408.9
더블유게임즈	비기업집단	박신정	전문	23,645	61	387.6
신라젠	비기업집단	지성권	전문	10,231	52	196.8
신라젠	비기업집단	박철	전문	9,858	52	189.6
씨제이제일제당	씨제이	손경식	지배	8,872	57	155.7
엔씨소프트	비기업집단	김택진	지배	13,836	90	154.6
에스케이네트웍스	에스케이	최신원	지배	5,250	56	93.8
비에이치	비기업집단	이경환	지배	4,460	49	90.4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 결제	비기업집단	박준석	전문	3,809	45	84.6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 결제	비기업집단	정승규	전문	3,771	45	83.8
효성	효성	조현준	지배	4,100	50	82.0
에이티젠	비기업집단	이재면	전문	2,527	35	72.5
노바렉스	비기업집단	이정래	전문	2,941	46	64.1
두산	두산	박정원	지배	4,996	79	63.2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정지선	지배	3,558	57	62.4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김태한	전문	3,889	65	59.8
현대자동차	현대차	정몽구	지배	5,476	92	59.5
서진시스템	비기업집단	소진화	전문	3,311	56	59.1
씨엠에스에듀	비기업집단	이충국	지배	2,292	40	57.3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지배	4,996	92	54.3
테크윙	비기업집단	나윤성	지배	2,493	46	54.2
두산인프라코어	두산	박용만	지배	4,384	84	52.2
이원	엘에스	구자용	지배	4,978	96	51.9
씨제이	씨제이	김흥기	전문	1,919	39	49.8
호텔신라	삼성	이부진	지배	2,608	53	49.2
풍산	비기업집단	류진	지배	3,513	72	48.5
현대모비스	현대차	정몽구	지배	4,107	88	46.7
한미반도체	비기업집단	곽동신	지배	2,571	56	45.9
이마트	신세계	권혁구	전문	1,614	36	44.8
엘지생활건강	엘지	차석용	전문	2,809	63	44.6
씨제이	씨제이	김흥기	전문	1,696	39	44.1
티에스이	비기업집단	박윤순	전문	1,974	45	43.9
파라다이스	비기업집단	전필립	지배	2,774	63	43.7
한양이엔지	비기업집단	김형욱	지배	2,701	62	43.6
상상인	비기업집단	유준원	지배	1,950	45	42.9
엘지	엘지	구분무	지배	8,372	197	42.6
씨제이제일제당	씨제이	신현재	전문	2,419	57	42.4

* 음영: 보수총액에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이 포함된 임원

IV. 5 억 이상 보수 수령 임직원 현황

5 억원 이상 고액보수를 수령하는 임직원을 대기업집단 및 비기업집단 소속,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으로 구분하여 평균보수를 확인해 보면 <표 14> 및 <표 15>와 같다.

5 억 이상 수령한 등기임원만의 보수가 공시된 2017년에는 대기업집단 소속 지배주주 일가의 평균보수가 2016년 17억 81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20억 3000만원이다. 반면 비기업집단 지배주주의 평균보수는 2016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의 평균보수 차이 역시 대기업집단과 비기업집단이 달라서, 대기업집단의 경우 지배주주의 평균보수가 전문경영인의 1.5 배인데 비해 비기업집단은 전문경영인의 평균보수가 오히려 1.1 배 더 높았다. 2016년까지 비기업집단 역시 지배주주의 평균보수가 전문경영인보다 약간 높았으나, 2017년 처음 역전되었다.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평균보수가 높아 비기업집단 지배주주와의 보수격차가 1.9 배에 달함에 비해 전문경영인은 대기업집단과 비기업집단 보수격차가 1.2 배로 낮은 편이었다.

<표 14> 5 억원 이상 보수 수령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 평균보수 현황(2017년)
(단위: 명, 백만원, 배)

구분	대기업집단			비기업집단			차이액	격차
	인원수	총금액	평균금액	인원수	총금액	평균금액		
지배주주	90	182,655	2,030	285	299,655	1,051	978	1.9
전문경영인	226	304,848	1,349	182	210,781	1,158	191	1.2
계	316	487,504	1,543	467	510,436	1,093	450	1.4
차이			681			-107		

2018년에는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와 비기업집단 전문경영인의 평균보수가 더 증가하여 비기업집단 지배주주 보다 전문경영인 평균보수가 더 높을 뿐 아니라 대기업집단 전문경영인보다 비기업집단 전문경영인의 평균보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부터 최초 공시된 5 억원 이상 수령 미등기임원 및 직원의 개별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등기임원 평균보수에 비해 비기업집단 지배주주와 대기업집단 전문경영인의 평균보수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고액보수 수령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 평균보수 현황(2018년)

(단위: 명, 백만원, 배)

구분		대기업집단			비기업집단			차이액	격차
		인원수	총금액	평균금액	인원수	총금액	평균금액		
등기임원	지배주주	87	217,971	2,505	318	334,751	1,053	1,453	2.4
	전문경영인	270	364,098	1,349	226	325,524	1,440	-92	0.9
	소계	357	582,069	1,630	544	660,275	1,214	417	1.3
	차이			1,157			-388		
미등기 임직원	지배주주	33	73,228	2,219	57	81,929	1,437	782	1.5
	전문경영인	285	427,212	1,499	141	189,474	1,344	155	1.1
	소계	318	500,440	1,574	198	271,403	1,371	203	1.2
	차이			720			94		

2017년 5억원 이상 수령 임직원의 보수 중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적으로 고액보수 수령 임직원의 평균보수가 감소하지만, 전문경영인의 경우 특히 감소폭이 높다. 이에 따라 비기업집단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의 평균보수 격차가 감소하여 양쪽 평균보수가 비슷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퇴직금 제외 5억원 이상 보수 수령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 평균보수 현황(2017년)
(단위: 명, 백만원, 배)

구분	대기업집단			비기업집단			차이액	격차
	인원수	총금액	평균금액	인원수	총금액	평균금액		
지배주주	90	158,360	1,760	285	279,064	979	780	1.8
전문경영인	226	269,479	1,192	182	173,032	951	242	1.3
계	316	427,839	1,354	467	452,096	968	386	1.4
차이			567			28		

2018년에도 5억원 이상 수령한 임원의 보수에서 퇴직금을 제외할 경우 전체 임원의 평균보수가 감소하지만 특히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경우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4개 계열사에서 사임하며 수령한 약 320억원의 퇴직금과 고 구분무 엘지그룹 회장 사망 후 엘지에서 수령한 퇴직금 약 200억원이 감소하여 평균보수금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미등기임원과 직원의 고액보수에서 퇴직금을 제외할 경우 대기업집단 지배주주를 제외한 비기업집단 지배주주 및 전문경영인의 보수의 감소폭이 컸다. 특히 대기업집단 전문경영인의 고액보수는 퇴직금에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제외할 경우 비기업집단 전문경영인의 평균보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퇴직금 제외 5억원 이상 보수 수령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 평균보수 현황(2018년)

(단위: 명, 백만원, 배)

구분		대기업집단			비기업집단			차이액	격차
		인원수	총금액	평균금액	인원수	총금액	평균금액		
등기임원	총수일가	87	164,328	1,889	318	319,055	1,003	886	1.9
	전문경영진	270	281,970	1,044	226	281,911	1,247	-203	0.8
	소계	357	446,298	1,250	544	600,966	1,105	145	1.1
	차이			844			-244		
미등기 임직원	총수일가	33	72,562	2,199	57	62,053	1,089	1,110	2.0
	전문경영진	285	270,877	950	141	159,458	1,131	-180	0.8
	소계	318	498,923	1,569	198	272,920	1,378	191	1.1
	차이			1,248			-42		

V. 대기업집단 5 억 이상 보수 수령 임직원 현황(퇴직금 제외)

퇴직금은 임직원의 성과와 무관하게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성격으로 인해 보수총액에 합산할 경우 전체 분석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하 V절의 분석에서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 한 개별보수를 공개한 임직원의 보수 중 퇴직금 및 퇴직소득금액으로 분류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1. 대기업집단 5 억 이상 수령 사내이사와 기타 사내이사 보수 격차

<표 18>은 대기업집단 계열사에서 5 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등기임원(사내이사)와 5 억원 미만 보수를 받은 사내이사의 평균보수와 격차를 비교한 것이다.⁵

분석대상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사내이사 중 5 억원 이상 보수를 수령하는 사내이사의 비중은 2017 년 40%, 2018 년 44%이다. 이들의 평균보수는 2017 년 13 억 5400 만 원, 2018 년 12 억 5000 만원으로 5 억원 미만 보수를 받는 사내이사 평균보수 1 억 9200 만원, 1 억 7500 만원의 7 배를 상회한다.

⁵ 5 억원 이상을 수령한 사내이사의 평균보수는 퇴직금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며, 5 억원 미만 사내이사의 평균보수는 각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사내이사(등기임원)의 보수총액 합계에서 5 억원 이상 수령한 임원의 개별보수(퇴직금 포함)를 차감하고, 이를 개별보수를 공시한 사내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내이사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2017~2018 년 고액보수 사내이사와 그 외 사내이사 간 보수격차가 가장 큰 기업집단은 지에스, 엘에스, 에스케이, 효성그룹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 기업집단은 2년 연속 양 사내이사 간 보수격차가 10 배 이상이었다. 효성그룹은 지배주주 일가 3명(조석래, 조현준, 조현상)이 고액보수를 수령하고 있는데, 조현준의 경우 기본연봉이 2017년 15억, 18년 30억원으로 산정되어 기타 사내이사 평균보수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스케이그룹의 경우 2018년 5억원 이상 보수 수령 임원 중 전문경영인 46명의 보수는 평균 11억원인데 비해 최태원 회장이 지주회사 에스케이(주)와 에스케이하이닉스에서 각각 30억원, 최신원 회장이 에스케이네트웍스에서 52억 5000만원을 수령하는 등 지배주주 일가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8> 대기업집단 고액보수 임(직)원과 기타 사내이사 평균보수 현황 (단위: %, 백만원, 배)

기업집단	2017년				2018년					
	고액보수 이사비중	고액보수 평균	기타사내 이사보수 평균	격차	기업집단	고액보수 이사비중	고액보수 평균	기타사내 이사보수 평균	격차	고액보수 임직원 평균보수
태영	35	639	34	19.0	지에스	41	1,722	54	31.7	726
지에스	41	1,745	105	16.6	효성	12	3,057	153	19.9	2,055
엘에스	29	2,005	137	14.7	엘에스	27	2,482	142	17.5	672
에스케이	42	1,308	94	13.9	에스케이	41	1,972	113	17.4	857
동국제강	17	2,379	200	11.9	한진	53	1,149	70	16.3	591
한국테크 놀로지	63	1,953	177	11.1	에스- 오일	20	1,049	83	12.7	558
케이티	15	1,097	111	9.9	한진중공 업	50	751	60	12.4	-
에스- 오일	20	743	82	9.1	현대백화 점	39	1,245	143	8.7	1,148
농협	9	986	109	9.0	두산	48	1,510	197	7.7	1,441
효성	17	1,428	173	8.2	케이씨씨	56	1,456	203	7.2	1,120
롯데	35	1,347	179	7.5	케이티	24	641	91	7.1	-
엘지	63	1,653	230	7.2	한국테크 놀로지	33	1,112	166	6.7	1,965
씨제이	43	1,447	215	6.7	유진	18	1,323	203	6.5	1,052
아모레퍼 시픽	83	2,926	438	6.7	영풍	18	1,047	173	6.1	1,141
케이티앤 지	50	959	148	6.5	미래에셋	67	1,119	221	5.1	1,230
삼성	87	2,225	346	6.4	동국제강	20	1,600	316	5.1	2,008

카카오	33	675	108	6.3	한라	36	1,210	248	4.9	603
셀트리온	25	959	156	6.2	대림산업	8	1,400	291	4.8	632
에이치디씨	40	1,130	188	6.0	오씨아이	25	1,171	251	4.7	466
대림산업	23	1,159	204	5.67	태영	25	1,001	227	4.4	-
한진	33	1,091	193	5.66	디비	29	745	170	4.4	940
현대백화점	41	1,153	205	5.64	롯데	55	869	217	4.0	483
두산	56	1,534	280	5.48	엘지	80	1,572	444	3.5	897
디비	30	1,581	301	5.25	신세계	62	888	255	3.5	1,581
현대차	62	996	207	4.82	하림	35	598	185	3.2	-
한화	52	875	191	4.57	한솔	17	525	163	3.2	1,791
영풍	17	872	196	4.45	셀트리온	25	1,080	348	3.1	3,320
한라	38	1,389	336	4.13	에이치디씨	11	843	276	3.1	-
에스엠	20	648	174	3.71	메리츠	83	1,316	468	2.8	1,186
포스코	71	987	290	3.41	아모레퍼시픽	67	1,134	405	2.8	382
오씨아이	36	1,061	315	3.37	한화	45	625	225	2.8	536
미래에셋	54	1,122	346	3.24	에스엠	10	586	227	2.6	366
케이씨씨	55	1,097	360	3.05	동원	10	654	263	2.5	632
동원	10	668	245	2.73	금호산업	50	576	244	2.4	-
현대중공업	45	611	224	2.72	현대중공업	42	681	371	1.8	472
신세계	38	933	357	2.62	삼성	84	1,521	3,045	0.5	1,186
하림	26	661	263	2.51	교보	100	1,010	-	-	1,060
한솔	8	446	179	2.49	금호석유화학	100	2,891	-	-	306
금호산업	33	706	291	2.42	네이버	100	1,505	-	-	1,305
세아	7	653	292	2.23	넷마블	100	1,295	-	-	1,709
한국금융지주	33	515	467	1.10	카카오	100	911	-	-	-
교보	100	722	-	-	한국금융지주	100	605	-	-	-
금호석유화학	100	2,614	-	-	대우건설	-	-	276	-	-
네이버	100	1,845	-	-	대우조선해양	-	-	245	-	-

한진중공업	100	423	-	-	삼천리	-	-	563	-	-
넥슨	-	-	169	-	세아	-	-	263	-	-
대우건설	-	-	413	-	이랜드	-	-	59	-	-
대우조선해양	-	-	183	-	태광	-	-	214	-	580
삼천리	-	-	358	-	하이트진로	-	-	110	-	782
이랜드	-	-	48	-	코오롱	33	880	-796	-1.1	342
태광	-	-	195	-	포스코	67	881	-495	-1.8	317
하이트진로	-	-	210	-	케이티앤지	75	1,321	-574	-2.3	274
코오롱	45	679	-36	-18.95	씨제이	63	1,900	-566	-3.4	2,885
					현대차	90	939	-99	-9.5	736
총합계	40	1,354	192	7.04	총합계	44	1,250	175	7.1	1,080

2. 5억 이상 보수 수령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현황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는 비기업집단 지배주주나 전문경영인에 비해 평균보수가 높으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10 여 명의 보수는 평균 40 억원을 초과한다. <표 19>와 <표 20>은 2017 년과 2018 년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중 40 억원 이상을 받은 최상위 수령자의 최근 2 년 보수 현황이다.

등기임원 개별보수가 공시된 후 지속적으로 최상위 보수를 수령한 대기업집단 지배주주는 현대차그룹 정몽구, 씨제이그룹 손경식, 한진그룹 조양호, 롯데그룹 신동빈과 효성그룹 지배주주 일가 등이다.

현대차그룹 정몽구는 2015 년 현대제철 등기이사 사임 뒤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 등기이사로서 보수를 받고 있는데, 최근 5 년 간 2017 년을 제외한 14, 15, 16, 18 년 90 억원이 넘는 보수를 수령하여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대기업집단 지배주주로 확인되었다. 정몽구의 보수는 성과와 연동되는 상여 등의 항목 없이 기본연봉으로만 산정된 급여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씨제이그룹 손경식은 씨제이제일제당 1 개사로부터만 보수를 받지만 2015 년~2016 년 단기인센티브로 약 50 억원을 수령, 전체 보수총액이 80 억원을 초과하여 대기업

집단 고액보수 수령 지배주주 중에서 최상위를 차지했다. 2018 년 역시 특별상여 명목으로 지급된 50 억 3300 만원을 포함하여 약 89 억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롯데그룹 신동빈은 뇌물 제공 등 불법행위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6 년 3 개 계열사에서 63 억 8000 만원, 2017 년 4 개 계열사에서 98 억 3000 만원, 2018 년에는 5 개 계열사에서 57 억 5000 만원의 고액보수를 수령하였다. 보수가 크게 증가한 2017 년에는 롯데케미칼에서 기본급 30 억원 외에 20 억원 이상의 상여금을 받았는데, 회사는 산정근거로 계량적 지표 외에 '준법경영, 윤리경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고 조양호의 보수는 2016 년과 2017 년 대한항공 등 3 개 계열사에서 66 억 4000 만원 동일한 보수를 받은 것으로 공시되었는데, 2018 년 미등기 임직원의 고액보수가 공시 의무로 인해 한국공항에서 수령한 보수 23 억원이 새롭게 공시되었다. 이로 인해 2018 년 조양호 이사의 보수는 92 억원을 초과하였다.

효성그룹 지배주주 일가 조석래, 조현준, 조현상은 고액보수 공시 이후 6 년 간 지속적으로 (주)효성에서 5 억원 이상 보수를 수령해 왔다. 지배주주인 조석래 이사가 2016 년까지 45 억원 넘는 보수를 받아 최상위 보수 수령자로 꼽혔으나 2017 년 7 월 이사직을 사임한 후 명예회장(미등기 임원)으로 전환하며 보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7 년 15 억원, 2018 년 27 억원을 수령하는 등 최상위는 아니지만 여전히 고액보수를 받고 있다. 2018 년에는 조석래 대신 조현준의 보수가 크게 증가하여 급여 30 억원, 상여금 11 억원 등 총 41 억원의 고액보수를 수령,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중에서도 최상위 보수 수령자로 꼽혔다.

에스케이그룹 최태원은 배임 등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등기임원을 사임하고 미등기임원만을 유지하여 개별보수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2016 년 에스케이 등기이사에 복귀하며 15 억 7500 만원을 공시했으며, 2017 년에는 5 억 증가한 20 억원의 보수를 공시했다. 2018 년 미등기임직원의 고액보수 공시의무로 인해 에스케이하이닉스 보수 30 억원을 새롭게 공시하여 2 개 계열사에서 총 60 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밖에 미등기임원 보수 공시로 최상위 고액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밝혀진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는 씨제이그룹 이재현과 신세계그룹 이명희, 정재은이다. 씨제이그룹 지배주주인 이재현은 형사재판 유죄 확정 후 사면되었으나 등기임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채 미등기임원직을 유지하여 2017 년까지 개별보수가 공시되지 않았다. 그러

나 2018 년 공시에 의하면 지주회사 씨제이와 씨제이제일제당, 씨제이이엔엠에서 160 억 1100 만원의 보수를 수령하여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씨제이에서만 71 억 9000 만원의 고액보수를 수령하였는데, 이는 급여 27 억원 외에 약 45 억원의 상여가 포함된 것이다. 씨제이제일제당은 지배주주 일가인 이재현과 손경식 두 사람에게만 총 153 억 6700 만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그룹 지배주주인 이명희와 정재은은 회장, 명예회장 등 미등기임원으로서 2017 년까지 보수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2018 년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에서 30 억 6900 만원, 신세계에서 10 억 6700 만원 등 각각 41 억 3600 만원의 동일한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배주주 조양래는 2017 년 약 45 억원 등 고액보수를 받아왔으나 2018 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하며 보수가 공시되지 않아 5 억원 이하로 보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9> 2017 년 보수 40 억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의 2017~2018 년 보수내역 (단위: 백만원)

기업집단	이름	2017 년			2018 년		
		보수총액	계열회사	개별보수	보수총액	계열회사	개별보수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10,919	아모레퍼시픽그룹	3,378	3,005	아모레퍼시픽	2,412
			아모레퍼시픽	7,541		아모레퍼시픽그룹	593
롯데	신동빈	9,832	롯데칠성음료	1,531	5,751	롯데칠성음료	685
			롯데케미칼	5,042		롯데케미칼	2,102
			롯데쇼핑	2,459		롯데쇼핑	1,417
			롯데제과	800		롯데제과	925
						롯데지주	622
현대차	정몽구	8,009	현대자동차	4,579	9,583	현대자동차	5,476
			현대모비스	3,430		현대모비스	4,107
지에스	허창수	7,303	지에스건설	2,269	7,765	지에스건설	2,501
			지에스	5,034		지에스	5,264
한진	조양호	6,640	한진	1,110	10,718	한진	1,110
			대한항공	2,872		대한항공	3,130
			한진칼	2,658		한진칼	2,658
						한국공항	2,323
						진에어	1,496
엘지	구분무	6,330	엘지	6,330	8,372	엘지	8,372
한라	정몽원	5,548	한라	1,494	5,222	한라	1,000

			한라홀딩스	1,173		한라홀딩스	1,403
			만도	2,881		만도	2,819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4,489	금호석유화학	4,489	4,996	금호석유화학	4,996
한국테크놀로지	조양래	4,469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4,469	미공시		
코오롱	이용열	4,460	코오롱	801	4,528	코오롱	801
			코오롱글로벌	923		코오롱글로벌	997
			코오롱생명과학	1,101		코오롱생명과학	1,101
			코오롱인더스트리	1,636		코오롱인더스트리	1,630
씨제이	손경식	4,433	씨제이제일제당	4,433	8,872	씨제이제일제당	8,872
엘에스	구자용	4,043	이원	4,043	4,978	이원	4,978
에이치디씨	정몽규	4,018	에이치디씨	2,562	2,788	에이치디씨	1,049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545		에이치디씨현대이피	1,739
			에이치디씨현대이피	911			

<표 20> 2018 년 보수 40 억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의 2017~2018 년 보수내역 (단위: 백만원)

기업집단	이름	2018 년				2017 년			
		보수총액	등기		미등기		보수총액	계열회사	개별보수
			계열회사	개별보수	계열회사	개별보수			
씨제이	이재현	16,011		-	씨제이	7,187	미공시		
					씨제이제일제당	6,497			
					씨제이이엔엠	2,327			
한진	조양호	10,718	대한항공	3,130	한국공항	2,323	6,640	한진	1,110
			한진칼	2,658		-		대한항공	2,872
			진에어	1,496		-		한진칼	2,658
현대차	정몽규	9,583	현대모비스	4,107		-	8,009	현대자동차	4,579
			현대자동차	5,476		-		현대모비스	3,430
씨제이	손경식	8,872	씨제이제일제당	8,872		-	4,433	씨제이제일제당	4,433
엘지	구분무	8,372	엘지	8,372		-	6,330	엘지	6,330
지에스	허창수	7,765	지에스건설	2,501		-	7,303	지에스건설	2,269
			지에스	5,264		-		지에스	5,034

에스케이	최태원	6,000	에스케이	3,000	에스케이 하이닉스	3,000	2,000	에스케이	2,000
롯데	신동빈	5,751	롯데칠성 음료	685		-	9,832	롯데칠성 음료	1,531
			롯데케미 칼	2,102		-		롯데케미 칼	5,042
			롯데쇼핑	1,417		-		롯데쇼핑	2,459
			롯데제과	925		-		롯데제과	800
			롯데지주	622		-		-	-
			에스케이	최신원	5,250	에스케이 네트웍스		5,250	
한라	정몽원	5,222	한라	1,000		-	5,548	한라	1,494
			한라홀딩 스	1,403		-		한라홀딩 스	1,173
			만도	2,819		-		만도	2,881
금호석유 화학	박찬구	4,996	금호석유 화학	4,996		-	4,489	금호석유 화학	4,489
두산	박정원	4,996	두산	4,996		-	3,199	두산	3,199
엘에스	구자용	4,978	이원	4,978		-	4,043	이원	4,043
코오롱	이용열	4,528	코오롱	801		-	4,460	코오롱	801
			코오롱글 로벌	997		-		코오롱글 로벌	923
			코오롱생 명과학	1,101		-		코오롱생 명과학	1,101
			코오롱인 더스트리	1,630		-		코오롱인 더스트리	1,636
			두산	박용만	4,384	두산인프 라코어		4,384	
신세계	이명희	4,136		-	신세계	1,067	미공시		-
				-	이마트	3,069			-
신세계	정재은	4,136		-	신세계	1,067	미공시		-
				-	이마트	3,069			-
효성	조현준	4,100	효성	4,100		-	1,558	효성	1,558
엘지	구본준	4,068			엘지	4,068	-	-	-

3. 전문경영인 사내이사 평균보수와 격차 큰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대기업집단 지배주주가 수령하는 고액보수가 전문경영인 사내이사 평균보수와 어느 정도 격차가 나는지 <표 21>과 <표 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1>과 <표 22>

의 '지배주주 제외 사내이사 평균보수' 항목은 전체 사내이사 보수총액에서 5 억원 이상 수령한 지배주주의 개별 보수를 차감한 후 지배주주 일가를 제외한 사내이사 수를 기준으로 평균을 구한 것이다.⁶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전문경영인 사내이사 평균보수에 비해 지배주주가 고액보수를 받는 상위 20 개 회사의 양자 간 보수격차는 4 배 이상이다. 이 중 엘에스그룹은 지배주주에 지급한 보수와 기타 전문경영인 사내이사 평균보수 격차가 4 배 이상인 계열사가 2017 년과 2018 년 4 개사나 되었다. 2018 년에는 케이씨씨 그룹 3 개 계열사에서 지배주주 사내이사에 지급한 고액보수가 전문경영인 사내이사 평균보수에 비해 4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2017 년 현대차그룹 정몽구, 롯데그룹 신동빈은 2 개 계열사에서 전문경영인 사내이사 평균보수에 비해 각각 6 배, 4 배 이상 많은 고액의 보수를 수령하였다.

<표 21> 2017 년 고액보수 지배주주 사내이사 대비 전문경영인 사내이사 평균보수 격차 (단위: 천원, 배)

기업집단	이름	회사명	보수액	지배주주 제외사내이사 평균보수	차이(배)
에이치디씨	정몽규	에이치디씨현대이피	911,000	60,000	15.2
동국제강	장세욱	동국제강	2,379,000	254,000	9.4
한진	조양호	한진칼	2,658,300	302,007	8.8
지에스	허태수	지에스홈쇼핑	1,723,000	200,800	8.6
엘에스	구자용	이원	4,043,000	529,000	7.6
롯데	신동빈	롯데제과	800,000	109,611	7.3
엘에스	구자균	LS 산전	2,021,000	285,000	7.1
한라	정몽원	만도	2,881,000	419,333	6.9
에스케이	최신원	에스케이네트웍스	3,000,000	457,000	6.6
현대차	정몽구	현대모비스	3,430,000	537,500	6.4
현대차	정몽구	현대자동차	4,579,000	733,500	6.2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4,489,000	739,000	6.1
씨제이	손경식	씨제이제일제당	4,433,000	768,000	5.8
엘지	구본무	엘지	6330000	1,226,923	5.2

⁶ 5 억원 미만을 받는 지배주주 일가가 있을 경우 지배주주 제외 사내이사 평균보수 계산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5 억원 미만을 받는 등기이사인 지배주주 일가를 확인할 수 없고, 실제 보수가 5 억원 미만인 지배주주 일가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배주주 일가의 보수는 모두 5 억원 이상으로 개별공시되었다고 가정하였다.

지에스	허창수	지에스건설	2269000	442,500	5.1
엘에스	구자철	에스코홀딩스	1,601,000	323,000	5.0
엘에스	구자열	엘에스	2723000	555,000	4.9
롯데	신동빈	롯데케미칼	5042000	1,117,000	4.5
한라	정몽원	한라	1493509	338,899	4.4
지에스	허창수	지에스	5034000	1,148,500	4.4
롯데	신동빈	롯데칠성음료	1531000	366,500	4.2
금호산업	박삼구	아시아나항공	739000	177,020	4.2

<표 22> 2018 년 고액보수 지배주주 사내이사 대비 전문경영인 사내이사 평균보수 격차 (단위: 천원, 배)

기업집단	이름	회사명	보수액	총수일가제외임 원보수평균	차이(배)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4,996,000	392,500	12.7
엘에스	구자균	LS 산전	2,757,000	224,000	12.3
지에스	허세홍	지에스글로벌	1,054,000	95,500	11.0
에스케이	최신원	에스케이네트웍스	5,250,000	536,500	9.8
엘에스	구자용	이원	4,978,000	555,000	9.0
지에스	허태수	지에스홈쇼핑	1,463,000	165,800	8.8
효성	조현준	효성	4,100,000	476,000	8.6
한라	정몽원	만도	2,819,000	347,000	8.1
두산	박정원	두산	4,996,000	639,000	7.8
한진	조양호	대한항공	3,130,440	413,665	7.6
케이씨씨	정몽진	케이씨씨	1,866,000	298,500	6.3
에스케이	최창원	에스케이디스커버리	1,400,000	231,500	6.1
엘에스	구자철	에스코홀딩스	1,832,000	312,000	5.9
지에스	허창수	지에스건설	2,501,000	461,000	5.4
유진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1,940,000	368,000	5.3
현대백화점	박홍진	현대그린푸드	1,016,000	194,833	5.2
엘에스	구자열	엘에스	3,448,000	662,000	5.2
한진	조양호	한진칼	2,658,300	537,920	4.9
씨제이	손경식	씨제이제일제당	8,872,000	1,847,000	4.8
케이씨씨	정몽익	케이씨씨	1,401,000	298,500	4.7
영풍	최창근	고려아연	1,523,000	325,328	4.7
두산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4,384,000	995,500	4.4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2,412,000	554,500	4.4
한국테크놀로지	조현범	한국타이어	1,253,000	289,000	4.3
한진중공업	조남호	한진중공업	745,000	174,000	4.3
효성	조현상	효성	2,013,000	476,000	4.2
메리츠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1,975,000	468,000	4.2

한라	정몽원	한라	999,550	245,882	4.1
지에스	허창수	지에스	5,264,000	1,307,000	4.0
케이씨씨	정몽열	케이씨씨건설	1,378,040	343,636	4.0

4. 대기업집단 고액보수 최상위자와 차상위자 간 보수격차

분석대상 대기업집단 계열사(2017 년 254 개사, 2018 년 256 개사) 중 5 억원 이상을 받아 개별보수 내역을 공시한 등기임원이 2 명 이상인 회사는 2017 년 96 개, 2018 년 103 개이다. 위 계열사 최상위 보수자의 평균보수는 2017 년 23 억 1300 만원, 2018 년 21 억 4700 만원으로 차상위 보수자 평균보수 2017 년 9 억 9300 만원과 2018 년 9 억 7400 만원과도 두 배 이상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과 <표 24>는 5 억원 이상 보수를 수령한 등기임원이 2 명 이상인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최상위 보수 수령자와 차상위 보수 수령자 간 보수격차가 큰 상위 20 명의 보수현황이다.⁷ <표 23>과 <표 24>에서 차상위 수령자의 보수가 5 억원 미만인 경우는 개별 보수총액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 2017 년 최상위와 차상위 간 보수격차가 가장 큰 한진중공업홀딩스와 현대로템, 2018 년 현대위아의 개별보수 내역을 보면, 차상위 보수 수령자의 보수가 퇴직금을 제외하여 감소했기 때문에 보수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퇴직금의 영향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최상위 보수 수령자와 차상위자 간 보수격차가 가장 큰 사례는 2017 년과 2018 년 연속 엘에스그룹 계열사 이원의 구자용으로 나타났다. 이원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구자용은 2017 년 40 억원, 2018 년 49 억 7800 만원의 보수를 수령하여 약 5 억원을 받은 부사장 윤선노보다 2017 년 7.7 배, 2018 년 9 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2017 년에는 에스케이그룹 지배주주 최신원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금호석유화학 지배주주 박찬구, 2018 년에는 한진그룹 지배주주 조양호 등이 차상위 보수 수령자와 보수격차가 큰 최상위 보수 수령자로 확인되었다.

고액보수 수령 임원이 복수인 회사 2017 년 96 개, 2018 년 103 개에서 최상위 보수 수령자가 지배주주인 회사는 17 년 47 개, 18 년 42 개로 지배주주 일가가 40%를 상

⁷ 개별보수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보수총액 상 5 억원 이상 고액보수를 수령한 등기임원의 순위가 바뀌거나 5 억원 미만으로 공시하지 않은 임원이 차상위 보수 수령자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회하는 반면 차상위자는 전문경영인인 경우가 2017년 83개, 2018년 91개사로 85% 이상을 차지하여 지배주주 보다 훨씬 많았다.

최상위-차상위 간 보수격차가 큰 상위 20명 중에서도 지배주주인 최상위 보수 수령자는 2017년 12명, 2018년 13명인 반면 차상위 보수 수령자 중 지배주주는 2017년 2명(4개 계열사), 2018년 2명뿐 대부분 전문경영인이었다. 최상위-차상위 간 보수격차가 큰 상위 20명 중 지배주주는 2013년 2014년과 2015년 16명에서 소폭 감소했으나, 아직까지 대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지배주주가 가장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상위 보수 수령자가 지배주주인 사례는 2017년 현대차그룹 지배주주 3세 정의선과 한진그룹 지배주주 3세인 조원태, 2018년에는 한진그룹 지배주주 3세 조원태와 조현민이다.

<표 23> 대기업집단별 고액보수 최상위자와 차상위자 보수현황(2017년) (단위:백만원, 배)

기업집단	회사명	최상위 수령자	지배주주 여부	최상위보 수액	차상위수 령자	지배주주 여부	차상위보 수액	차이	격차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홀딩스	조남호	지배	757	이수신	전문	53	704	14.3
현대차	현대로템	김승탁	전문	677	장현교	전문	73	604	9.3
엘에스	이원	구자용	지배	4,043	윤선노	전문	527	3,516	7.7
한화	한화생명보험	차남규	전문	1,288	정택환	전문	185	1,103	7.0
에스케이	에스케이네트웍스	최신원	지배	3,000	문종훈	전문	451	2,549	6.7
현대차	현대모비스	정몽구	지배	3,430	정의선	지배	552	2,878	6.2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지배	4,489	김성채	전문	739	3,750	6.1
한진	한진	조양호	지배	1,110	조원태	지배	190	920	5.8
한진	대한항공	조양호	지배	2,872	조원태	지배	501	2,371	5.7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지배	7,541	심상배	전문	1,702	5,839	4.4
삼성	삼성생명보험	김창수	전문	3,158	김대환	전문	722	2,436	4.4
롯데	롯데케미칼	신동빈	지배	5,042	허수영	전문	1,184	3,858	4.3
삼성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전문	3,859	김동중	전문	952	2,907	4.1
삼성	삼성카드	원기찬	전문	3,077	정준호	전문	783	2,294	3.9
엘지	엘지디스플레이	한상범	전문	2,314	김상돈	전문	592	1,722	3.9
현대차	현대자동차	정몽구	지배	4,579	정의선	지배	1,249	3,330	3.7
엘지	엘지생활건강	차석용	전문	3,244	허성	전문	897	2,347	3.6
엘지	엘지유플러스	권영수	전문	2,309	이혁주	전문	648	1,661	3.6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조남호	지배	745	안진규	전문	212	533	3.5
삼성	삼성증권	윤용암	전문	2,231	전영목	전문	645	1,586	3.5

<표 24> 대기업집단별 고액보수 최상위자와 차상위자 보수현황(2018 년) (단위:백만원, 배)

그룹	회사명	최상위 수령자	지배주 주여부	최상위 보수액	차상위 수령자	지배주 주여부	차상위 보수액	(A)-(B)	(A)/(B)
현대차	현대위아	김경배	전문	663	윤준모	전문	18	645	36.8
엘에스	이원	구자용	지배	4,978	윤선노	전문	555	4,423	9.0
한진	진에어	조양호	지배	1,496	조현민	지배	193	1,303	7.8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지배	4,996	김성채	전문	785	4,211	6.4
코오롱	코오롱인더스트리	이용열	지배	1,630	안태환	전문	265	1,365	6.2
에스케이	에스케이텔레콤	박정호	전문	3,506	유영상	전문	579	2,927	6.1
한진	대한항공	조양호	지배	3,130	조원태	지배	583	2,548	5.4
지에스	지에스리테일	허연수	지배	906	김준경	전문	179	727	5.1
두산	두산	박정원	지배	4,996	동현수	전문	989	4,007	5.1
한진	한진칼	조양호	지배	2,658	석태수	전문	538	2,120	4.9
에스케이	에스케이네트웍스	최신원	지배	5,250	박상규	전문	1,073	4,177	4.9
엘지	엘지디스플레이	한상범	전문	2,812	김상돈	전문	663	2,149	4.2
삼성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전문	3,889	김동중	전문	966	2,923	4.0
현대차	현대모비스	정몽구	지배	4,107	임영득	전문	1,023	3,084	4.0
엘지	엘지	구본무	지배	8,372	하현희	전문	2,087	6,285	4.0
씨제이	씨제이제일제당	손경식	지배	8,872	신현재	전문	2,419	6,453	3.7
카카오	카카오	박성훈	전문	3,014	조수용	전문	837	2,177	3.6
엘지	엘지생활건강	차석용	전문	2,809	허성	전문	798	2,011	3.5
씨제이	씨제이	김홍기	전문	3,615	최은석	전문	1,058	2,557	3.4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지배	2,412	안세홍	전문	732	1,680	3.3

5. 복수 계열사 고액보수 수령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2017 년 복수의 계열사에서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5 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한 대기업집단 지배주주는 총 18 명으로 44 개 계열사에서 각각 5 억원 이상 보수를 수령하였다.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지배주주는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로 2 개 계열사에서 109 억 1900 만원을 수령하였으며, 가장 많은 계열사에서 보수를 받은 지배주주는 롯데그룹 신동빈과 코오롱그룹 이용열로 각각 4 개 계열사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98 억 3200 만원, 44 억 6000 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표 25> 복수 계열사 고액보수 수령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현황(2017 년) (단위:백만원)

기업집단	성명	고액보수 계열사수	보수총액	회사명	계열사별 보수 (퇴직금제외)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2	10,919	아모레퍼시픽	7,541
				아모레퍼시픽그룹	3,378
롯데	신동빈	4	9,832	롯데케미칼	5,042
				롯데쇼핑	2,459
				롯데칠성음료	1,531
				롯데제과	800
현대차	정몽구	2	8,009	현대자동차	4,579
				현대모비스	3,430
지에스	허창수	2	7,303	지에스	5,034
				지에스건설	2,269
한진	조양호	3	6,640	대한항공	2,872
				한진칼	2,658
				한진	1,110
한라	정몽원	3	5,548	만도	2,881
				한라	1,494
				한라홀딩스	1,173
코오롱	이용열	4	4,460	코오롱인더스트리	1,636
				코오롱생명과학	1,101
				코오롱글로벌	923
				코오롱	801
에이치디씨	정몽규	3	4,018	에이치디씨	2,562
				에이치디씨현대이피	911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545
태영	윤석민	2	2,968	태영건설	1,161
				에스비에스미디어홀딩스	334
에스케이	최창원	2	2,600	에스케이가스	1,600
				에스케이디스커버리	1,000
한진중공업	조남호	3	2,211	한진중공업홀딩스	757
				한진중공업	745
				한국종합기술	709
케이씨씨	정몽익	2	2,029	케이씨씨	1,037
				코리아오토글라스	992
현대차	정의선	2	1,801	현대자동차	1,249
				현대모비스	552
태영	윤세영	2	1,654	태영건설	987
				에스비에스미디어홀딩스	333

한진	조원태	2	1,485	대한항공	501
				한진	190
금호산업	박삼구	2	1,411	아시아나항공	739
				금호산업	672
에스엠	우오현	2	1,295	대한해운	700
				남선알미늄	595
하림	김홍국	2	1,071	엔에스쇼핑	551
				팜스코	520

2018년에는 22 명의 대기업집단 지배주주가 복수의 계열사에서 고액보수를 수령했는데, 씨제이그룹 이재현, 신세계그룹의 이명희와 정재은, 케이씨씨그룹 정상영 4 명은 복수의 계열사 미등기임원으로서만 각각 5 억원 이상의 고액보수를 받았다. 씨제이그룹 이재현이 3 개 계열사 미등기임원으로 수령한 160 억 1100 만원은 전체 고액보수 수령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금액이었으며, 롯데그룹 신동빈과 한진그룹 조양호 등은 전년보다 많은 5 개 계열사에서 각각 5 억원 이상의 고액보수를 수령하였다.

<표 25>와 <표 26>의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경우 상근 회사와 비상근 회사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다수의 회사에서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을 겸직하며 각 회사마다 상근 임원에 준하는 고액보수를 받는 것이 직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표 26> 복수 계열사 고액보수 수령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현황(2018 년) (단위:백만원)

기업집단	성명	고액보수 계열사수	보수총액	회사명	등기여부	계열사별보 수(퇴직금제 외)
씨제이	이재현	3	16,011	씨제이	미등기	7,187
				씨제이이엔엠	미등기	2,327
				씨제이제일제당	미등기	6,497
한진	조양호	5	10,718	대한항공	등기	3,130
				진에어	등기	1,496
				한국공항	미등기	2,323
				한진	등기	1,110
				한진칼	등기	2,658
현대차	정몽구	2	9,583	현대모비스	등기	4,107
				현대자동차	등기	5,476
지에스	허창수	2	7,765	지에스	등기	5,264
				지에스건설	등기	2,501

에스케이	최태원	2	6,000	에스케이	등기	3,000
				에스케이하이닉스	미등기	3,000
롯데	신동빈	5	5,751	롯데쇼핑	등기	1,417
				롯데제과	등기	925
				롯데지주	등기	622
				롯데칠성음료	등기	685
				롯데케미칼	등기	2,102
한라	정몽원	3	5,222	만도	등기	2,819
				한라	등기	1,000
				한라홀딩스	등기	1,403
코오롱	이용열	4	4,528	코오롱	등기	801
				코오롱글로벌	등기	997
				코오롱생명과학	등기	1,101
				코오롱인더스트리	등기	1,630
신세계	이명희	2	4,136	신세계	미등기	1,067
				이마트	미등기	3,069
신세계	정재은	2	4,136	신세계	미등기	1,067
				이마트	미등기	3,069
한솔	조동길	2	3,738	한솔제지	미등기	2,990
				한솔홀딩스	등기	748
케이씨씨	정상영	3	3,361	케이씨씨	미등기	923
				케이씨씨건설	미등기	921
				코리아오토글라스	미등기	1,517
케이씨씨	정몽익	2	3,182	케이씨씨	등기	1,401
				코리아오토글라스	등기	1,781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2	3,005	아모레퍼시픽	등기	2,412
				아모레퍼시픽그룹	등기	593
현대차	정의선	2	2,951	현대모비스	등기	738
				현대자동차	등기	2,213
현대백화점	정교선	2	2,862	현대백화점	미등기	1,566
				현대홈쇼핑	등기	1,296
에스케이	최창원	2	2,801	에스케이가스	등기	1,401
				에스케이디스커버리	등기	1,400
하림	김홍국	3	1,713	엔에스쇼핑	등기	665
				팜스코	등기	520
				팬오션	등기	528
한진중공업	조남호	2	1,502	한진중공업	등기	745

				한진중공업홀딩스	등기	757
금호산업	박삼구	2	1,423	금호산업	등기	750
				아시아나항공	등기	673
한진	조원태	2	1,098	대한항공	등기	583
				한진칼	등기	515
한진	조현민	2	396	대한항공	미등기	203
				진에어	등기	대

6.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퇴직금 수령 내역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중 임원 사임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사례는 2017 년 6 건, 2018 년 6 명이 수령한 9 건이다. 미등기임원 사임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사례는 2018 년 한진그룹 조현민이 대한항공 전무를 사임하며 퇴직금 6 억 6600 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오씨아이그룹 이수영과 엘지그룹 구본무는 사망 후 각각 186 억 5000 만원과 201 억 3600 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구본무의 경우 20 년 이상 긴 근무기간에 직위별 지급율 5 배를 반영한 결과로 고액 퇴직금이 산정되었다.

그 밖에 롯데그룹 신영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중 롯데쇼핑 등기이사를 사임하며 5 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한진그룹 조현민 역시 '갑질논란' 등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며 2 개 계열사에서 약 13 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코오롱그룹 이용렬은 2018 년 4 개 계열사 등기임원을 사임하며 퇴직금만 32 억원을 수령하였다.

<표 27> 고액보수 수령 대기업 지배주주 퇴직금 수령 사례(2017 년) (단위: 천원)

기업집단	회사명	성명	재직기간	보수총액	퇴직소득	급여	상여
한진	한진	조원태	9 년 3 개월	983,994	793,650	190,344	-
오씨아이	OCI	이수영	미확인	19,357,000	18,650,000	677,000	-
현대차	현대위아	이명호	3 년	629,000	238,000	391,000	-
한진중공업	한국종합기술	조남호	18 년 7 개월	3,514,981	2,806,260	650,000	58,721
태영	에스비에스미디어홀딩스	윤세영	1 년 8 개월	667,000	334,000	333,000	-
태영	에스비에스미디어홀딩스	윤석민	8 년 7 개월	1,807,000	1,473,000	334,000	-

<표 28> 고액보수 수령 대기업 지배주주 퇴직금 수령 사례(2018 년) (단위: 천원)

기업집단	회사명	성명	재직기간	보수총액	퇴직소득	급여	상여
------	-----	----	------	------	------	----	----

엘지	엘지	구분무	23년 3개월	28,508,000	20,136,000	1,368,000	4,060,000
지에스	지에스글로벌	허세홍	2년	1,369,000	315,000	688,000	364,000
한진	진에어	조현민	6.5년	824,000	631,000	173,000	20,000
한진	대한항공	조현민	7.5년	868,841	666,274	169,183	33,384
롯데	롯데쇼핑	신영자	4년*	597,000	500,000	97,000	0
코오롱	코오롱	이웅열	미확인	3,200,500	2,400,000	800,000	0
코오롱	코오롱글로벌	이웅열	미확인	9,347,000	8,350,000	900,000	96,750
코오롱	코오롱생명과학	이웅열	미확인	4,322,033	3,221,533	1,100,000	0
코오롱	코오롱인더스트리	이웅열	미확인	19,718,726	18,089,068	1,600,000	

*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

VIII. 결론 및 시사점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등기임원의 개별보수 공시 의무화 이후 한 명 이상 등기임원 개별보수를 공개하는 회사는 매년 전체 상장회사의 약 25%였으며, 2018년에 31%까지 증가했다. 즉 5억원 이상 고액보수를 수령하는 임원이 한 명 이상 존재하는 회사가 최근 5년 동안 약 1/4이며, 나머지 70% 이상 상장회사는 개별임원 보수를 전혀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보수를 수령하여 개별보수를 공시한 임원은 대부분 사내이사로 2013년 이후 전체 등기임원 대비 약 5~6%, 사내이사 대비 약 10%를 유지해 왔으며, 2017년에는 전체 등기임원 대비 6%, 2018년 7% 사내이사 대비 2017년 12%, 2018년 13%로 소폭 상승하였다.

5억원 이상 고액보수 수령 등기임원의 평균보수는 2017년 12억 7500만원, 2018년 13억 7900만원으로 전체 사내이사 평균보수의 4배가 넘었다. 5억 미만 보수를 받는 사내이사 평균보수와 격차는 더욱 커서 2013년 이후 7배를 상회하다 2018년 9배 차이가 났다. 전체 직원 평균보수와 고액보수 수령 등기임원의 평균보수는 최근 5년 평균 20배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

5억원 이상 고액보수 수령 등기임원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인 등기임원의 평균보수가 전문경영인이나 비기업집단 지배주주 등기임원에 비해 많다. 2018 년 고액보수 수령 등기임원 중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평균보수가 약 19 억원임에 비해 비기업집단 지배주주와 대기업집단 전문경영인은 약 10 억원, 비기업집단 전문경영인 평균보수는 12 억 5000 만원이었다.

고액보수를 받는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중에서도 최상위 보수수령자는 현대차그룹 지배주주 정몽구, 씨제이그룹 손경식, 엘지그룹 구본무, 롯데그룹 신동빈, 한진그룹 조양호 등이다. 이들은 최근 5 년 동안 매년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최상위 보수수령자 10 명 내에 포함되었다. 현대차그룹 정몽구는 2014~2016 년 최고액 보수수령자, 2017~2018 년에는 두 번째로 많은 보수를 받은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였으며, 씨제이그룹 손경식과 엘지그룹 구본무는 각각 씨제이제일제당과 (주)엘지계열사에서만 최상위급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롯데그룹 신동빈과 한진그룹 조양호는 최근 불법행위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서도 매년 40 억원 이상 보수를 받아 최상위 보수수령자에 포함되었다.

2018 년 개별보수 5 억원 이상, 보수 상위 5 위 이상인 미등기임원 및 직원의 개별보수가 공개되어, 의도적으로 등기이사를 사임하여 개별보수 공시 의무를 편법적으로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은 일부 임원과 미등기임원으로서 경영권을 행사해온 일부 지배주주의 개별보수가 공시되었다. 특히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중 미등기임원으로만 재직 중인 신세계 이명희 등과 형사재판 유죄판결 후에 미등기임원으로 경영에 복귀한 씨제이그룹 이재현과 에스케이그룹 최태원 등이 30 억원 이상 고액보수를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개별임원 보수공시 의무 목적은 단순히 고액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정보 공개가 아니라 객관적, 합리적 임원 보수체계 확립에 있다. 이에 따라 개별 보수 공시기준의 확대와 함께 개별보수 산정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시강화가 중요하다. 이에 경제개혁연구소는 임원 보수공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개별보수 공시 임원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공시기준을 현행 5 억원에서 1 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등기임원도 5 억원이 아니라 1 억원 이상 보수를 수령하고 보수총액 기준으로 임직원 중 상위 5 명에 포함될 경우 개별보수를 공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개별보수를 공시하는 임원이 특수관계인 법인(즉 계열사)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에서 지급받는 보수 내역을 병기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보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보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한 공시 수준은 대부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개별임원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임원보수정책, 성과평가 기준,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과 관련된 설명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특히 회사 성과 하락에도 불구하고 임원보수가 늘어났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성과급의 경우 해당 금액의 계산근거와 비개량적 지표를 사용했을 경우 구체적 적용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거의 모든 상장회사가 임원보수규정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는 반면 대부분 보수 산정 기준 관련 공시는 '임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지급'했다고만 언급하여 보수산정 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임원보수규정 공시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

넷째, 임원의 경우 승진하며 근로자로서 법정 퇴직금을 정산하고 각 회사별 임원퇴직 급여규정을 적용 받는다. 임원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은 직급별로 많게는 6 배 이상의 지급률을 적용하는데, 이로 인해 근로자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액의 퇴직금이 산출된다. 특히 젊은 나이에 임원이 되어 높은 직급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지배주주 일가 출신 임원의 퇴직금은 수 백억원 대에 이르기도 하는 반면 퇴직금의 산정 근거는 '임원퇴직급여규정에 따른다'고만 공시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퇴직급여의 경우에도 퇴직금 산식에 포함되는 월평균급여, 근무기간, 지급률 등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고 퇴직위로금, 공로금 등의 산정기준 등 임원퇴직급여규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